

全国 市道支部長會議 開催



지난 18일 俗離山觀光호텔 會議室에서



(사진은 시도 지부장회의 장면)

지난 18일 속리산관광호텔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지부장과 치협회장단 및 임원 전원을 비롯하여, 제14차 아태치과연맹총회 준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시도지부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간추려보면

1) 정관 개정안을 다음 총회에 상정키로 한바,

- 임원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 총회 운영에 있어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총회 운영의 한 방안으로, 대의원 수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 대의원총회는 운영위원회, 재정위원회, 법사위원회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 심의.

2) 공중보건 치과외사는 예비역 군의관 신분을 감안하여, 지부회비만을 면제해 주기로 결론되었으며,

3) 회관용 대지 및 건물 매입문제에 관해서는 치협재정과 제14차 아태치과연맹총회 유치를 고려하여 치협 실정에 맞는 건물을 우선 매입하고, 다음 총회에서 이를 추진받는 문제.

4) 부정 의료행위자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실효성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일차적으로 공청회를 열어 중지를 모으기로 결론지었다.

또한 제14차 아태치과연맹총회 강요식준비위원장으로 부터 위원회 구성내용과 준비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제행사장소로서 손색이 없는자리를 물색하고 있는데 현재는 89년 2월 준공예정인 대한무역진흥공사 회관이 유력하다고 설명하고 총회시 입국의국민들의 수송편의를 위해 대한항공의 지정여부를 동 항공사에 조회하였다고 했다. 또한 심볼마크를 만들 생각이며 부채 등 기념물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총회준비 계획을 밝혔다.

그밖에 보수교육문제에 있어 종합학술대회가 없는해에는 지역적인 문제를 고려, 각 지부에 3점의 점수관리를 지부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알찬 지부소식을 전하기 위해 각 지부에 기자를 파견, 취재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다.